

방송업계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공지사항

최근 일부 방송 출연자들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주요 방송제작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방역물품 지원 등 방송 제작 분야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현장 대응방안 및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권고사항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 제작현장 점검 강화

1) 정부 합동점검: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

-방역 관리자 지정, 제작 현장 출입관리(발열체크 등),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식사 시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2. 현장 대응강화

1) 선제 검사: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 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2) 방청객 제한: 4단계 기간 동안 방청객을 최소한으로 하고, 방청객은 화면 노출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

3. 방송제작인력 지원방안 등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대응방안

1. 정부기관의 온라인 브리핑 등 비대면 공보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2.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며, 의료현장 취재 등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일 경우는 방호복 등 추가 보호 장구를 사용한다.

3. 취재 장소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손이 닿은 표면을 소독한다.

4. 취재원과의 근거리 대화 등 밀접접촉은 가급적 자제하며, 접촉시각, 접촉방법,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5. 감염위험 등 현장상황을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고, 취재 현장에서 감염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회사 복귀 여부를 미리 협의한다.